

# 전 세계 신기한 수박이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 박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1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소개하는 '박과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평가회는 박과 유전자원의 생육, 형태, 기능성 성분 등 유용 형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우수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

해 마련됐다.

미국, 중국, 조지아 등 40여 나라에서 수집된 600여종을 선보이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호피무늬 수박과 네트(그물망 무늬) 멜론, 외국에서 재배되는 크립스타입 수박, 무(無)네트 멜론 등을 전시했다.

또한 수박의 라이코펜 등 기능성성분이 높은 자원, 절감이 깊어 껍질 제거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세업 자원과 인도 등 동남아 지역의 야생(근연)종도 함께 소개했다.

종자산업체, 육종가, 연구자, 농업인들에 의해 현장에서 선발된 우수 자원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과종 수박 수요가 늘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능성, 내병성 컬러 수박, 씨없는 수박 등 품종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박과채소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조1000억원으로 전체 채소 생산액 11조3000억원의 19%를 차지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종자산업체와 연구자들이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한 다양한 박과 유전자원을 꼭 넓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정부 "日 불화수소 유출 여부 조사, 완벽한 상태로 시행"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1일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라북도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브리핑을 마친 뒤 출입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수출입 통관 업체 조사가 단기간 안에 이뤄졌다.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박 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 유출 여부 관련 업체 조사의 기간은 4일가량이다. 수출입 통관 실적, 전라북도 수출 허가 실적, 업체 조사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면서 "불화수소 수입자 및 생산, 가공, 유통, 수출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3~4일 정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라북도관리체계에 따라 이들 기업이 수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된 가운데에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도 완벽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산업부에서 조원진 우리공화당(당시 대한애국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가 어떻게 일본 언론에 유통됐느냐는 질의에는 "조원진 의원실에서 전라북도수출통제와 관련해 적발 건수와 조치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이 자료에 기반해 조선일보가 올해 5월 17일에 보도했고 그 기사를 토대로 해 후지TV와 산케이신문 등이 어제 보도한 바 있다"고 답했다.

"2012년부터 주무 부처 국장급 협의 채널을 운영해오다가 2018~2019년 '인사'를 이유로 미뤄졌고 이와 관련해 양국이 사실관계를 두고 맞다, 틀리다 갑론을박했는데 정확한 배경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최근 일정 조

율과 관련해 서로(한-일)가 합의하지 못했고 올해 초 3월 이후에 양측이 다시 논의하자고 양해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실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꺾는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라북도 수출 허가 및 관련 업체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

한 불법 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한국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 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색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박 실장은 "근거를 밝히지 않은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일본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약화할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꺾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시



농어촌공 남원지사가 11일 하미레 내 고향 물 해설가를 초청,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물의 소중함, 다시 배워요"

### 농어촌공 남원지사, 물 해설가 초청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11일 하미레 내 고향 물 해설가를 초청, 남원국악예술고에서 재학생 13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의 물과 물을 담는 그릇인 수리 시설을 중심으로 남원지역의 문화와 역사, 생태환경 등과 어우러진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물에 대한 소중함을 설명하고, 사랑방 산 역할과 나이가 농어촌을 필요로

운 삶터로 만들어주는 농업용수의 중요성과 물을 이용해 만들어지는 농촌의 가치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춘성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물의 중요성 및 생태환경과 어우러진 농업용수의 가치를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 농협 진안군지부, '팜스테이 마을' 홍보 캠페인 전개

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성훈)와 진안군 농협 조합장(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은 11일 전주역에서 진안군 노채 팜스테이 마을 안내전단, 팜스테이 홍보용 부채,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며 '여름휴가는 진안군 팜스테이 마을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팜스테이 마을이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stay)의 합성어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주변 관광지 관광 및 마을 축제에 참여 할 수 있는 농촌·문화·

관광이 결합된 농촌체험 관광상품으로 전라북도에도 16개 농협 팜스테이 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김성훈 지부장은 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협 팜스테이 마을'을 홍보했으며, 올 여름휴가는 도시생활에 벗어나 진안군 노채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해 일상생활에 지친 스트레스를 풀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농협 장수군지부, 폭염대비 취약계층 무더위 극복 지원

NI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태호)와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은 11일 장수읍 식천리 식천마을회관을 찾아 폭염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농업인을 돕기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김태호 지부장, 김용준 조합장, 김기병 이장 및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더위 극복을 위한 선종기와 과일, 음료 등을 전달했다.

또한 농협은 매년 지속되는 폭염으로 무더위에 지친 고객과 농업인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장수군내 10개 점포에 여름철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태호 지부장은 여름철 더위가 연일 지속되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농업인은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마을회관 등에 모여서 더위를 피해야 하고, 부득이 농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아이스팩, 모자, 그늘막 등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짧게 자주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보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롯데백 전주점 샐러드 봉사단, 초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데이' 큰 호응

롯데백화점 전주점 샐러드 봉사단은 11일 전주시 완산구 중노숙동에 위치한 인노노인복지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초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샐러드 봉사자 15명과 풀무원 푸드앤컬처 김귀동 점장은 정성스럽게 손질한 닭에 인삼, 대추, 참쌀 등으로 속을 채우고 조리부터 무료 배식 활동을 펼쳤다.

또 어르신에게 후식으로 제철 과일인 수박을 제공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초복을 앞두고 제공된 오늘 삼계탕이 무더위와 폭염으로 소진된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보양식이 됐기를 바란다"며 "계



롯데백 전주점 샐러드 봉사단이 11일 인노노인복지관에서 '초복 맞이 사랑의 삼계탕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절과 날씨가 가리지 않고 사랑나눔행사를 연중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 샐러드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자체 봉사단으로 매월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을 방문해 소의계증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뉴스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